

老人家口의 同別居 類型에 關한 研究

- 충남 서산 지역의 경우를 중심으로 -

A Study on Living Arrangement Type of the Elderly

- Focused on Seo-San Area in Choong-Nam Province -

이 인 수*

Lee, In-Soo

장 세 철**

Chang, Se-Cheol

Abstract

This study has been performed to analyze living arrangement in later life. In this study, 276 Koreans aged 60 or more were interviewed for their current household structure. The results are drawn as follows: 1. Of all the households with at least one person aged 60 or more, those living in three generations account for the largest proportion, 39.9 percent. For the regional difference, the rate was slightly higher in urban areas than in rural areas. 2. 48.7% of the subjects living in owned homes were households with elderly only, but only 23% of those living in rented homes are elderly only. Overall, the rate of elderly-only households becomes the highest for those living in owned single structure homes. This result indicates that the elderly with higher economic status are more likely to live without children than others. 3. As for birth order, those who grew up as the first child are most likely to live in elderly-only households, while others are in three generation homes. 4. The elderly with few children are more likely to live independently than those with many children, not because they are without dependable children, but because spend less resource for childbearing and therefore are more independent. 5. Overall in this study, it is supported that socioeconomic status and independability are more influential factors on living arrangement of the elderly than regional or emotional factors.

I. 서 론

1. 연구의 의의

전통적인 유교문화권에 있는 한국노인을 대상으로한 연구에 의하면 60세이상 노인중 58% 이상의 대다수가 자녀와의 동거를 이상적인 노후 주거형태로 인식하고 있는데(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그 가장 큰 이유는 식사와 건강관리를 자녀에게 의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이며 그외에 자녀와 함께 살며 손자녀 양육과 가사를 도와주고자 하는 意志, 노인만 사는

것 보다는 손자녀와 생활하며 느끼는 정서적 즐거움에 대한 매력 등이 주요 동기로 작용한다. 한국노인문제연구소(1993)의 조사에서도 과반수 이상 노인이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을 이상적인 가족 생활로 인식하고 있으며 노인 자신의 경제력이 높거나 자녀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특별한 의도에서, 혹은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부양능력이 낮을때 불가피하게 별거할 수 밖에 없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다.

60세이상 노인이 거주하는 이른바 老人家口가 우리 나라 전체 가구의 22%를 넘어서면서(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노인이 가족에 미치는 보건사회학적 영향이 민감한 연구과제로 등장하고

*평이사, 한서대 노인복지학과 교수, 가정학 박사

**한서대 노인복지학과 교수, 사회복지학 박사

있다. 노인가구는 크게 나누어 노인만 사는 노인 단독가구, 그리고 노인과 그 자녀나 손자녀가 함께 사는 노인-자녀세대 동거가구등 두 부류가 주요 연구과제로 등장하는데(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92; 김태현, 1994) 모두 사회학적으로 여러가지 상반된 의미를 갖는다.

독신노인이나 노부부만 거주하는 노인단독 가구는 가구원의 취약한 건강상태와 주거환경 관리 능력 저하로 인해 보건복지 측면에서는 “要保護 및 警戒 對象”인 반면 자녀에게는 세대간 갈등이나 부양부담을 덜어주는 능력있는 부모로 인식될 수 있다.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가구는 보건복지 측면에서는 부양책임자와 근접한 “안전 노인 집단”이지만 자녀에게는 부양제공과 사생활 제약을 초래하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노인 입장에서는 노인만의 거주가 자유스럽고 떳떳한 반면, 건강악화시 자녀를 찾아오게하여 자녀의 생산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자녀와의 동거는 유사시 즉시 자녀도움을 받는 편리함이 있지만 손자녀돌봄과 가사노동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모하기에 노인자신을 위한 자유가 침해 당한다. 이렇듯 노인의 거주형태는 단독거주 혹은 자녀와의 동거가 각각 민감한 장단점을 갖는다.

주거학에 있어 노인의 동별거 유형 연구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다. 노인 단독가구 비율 산출은 우선 유료 노인 집단주거시설의 보급에 있어 잠재고객을 산출하는 기준이 된다. 한국노인을 대상으로한 최근 연구에 의하면(신한종합연구소, 1991; 한국주택협회, 1993) 자녀와 별거하는 노인중 50% 이상은 경제적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유료 노인 시설에 거주하며 서로의 마음을 이해 할 수 있는 동료 노인과의 왕성한 사교를 추구하고 싶다고 응답하는 바, 노인단독 거주는 곧 노인주거 시설 입소의 전이 단계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자녀나 손자녀와 동거하는 노인가구 비율의 산출은 숙식과 주거생활, 건강관리 등 일차보호

(primary care) 가능 노인의 수를 추정하여 노인 복지계획을 수립하며, 가사일과 자녀 양육 등에 노부모의 도움이 가능한 세대를 추정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된다. 이처럼 노인의 동별거 유형 분석은 주거학과 보건복지 측면에서 가장 초보적이며 필수적인 과제라 하겠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60세 이상 한국 노인의 거주형태중 동별거 유형, 특히 노인단독 對 자녀나 손자녀와의 동거가구 비율을 산출하기 위해 이루어진 경험적 연구로서,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가구의 동별거 유형을 도시화된 지역과 농촌지역으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함.

둘째, 노인가구의 동별거 유형을 주택소유여부와 주택구조 등 주거상태 별로 비교 분석함.

셋째, 노인가구의 동별거 유형을 노인의 형제 자매중 순위, 노인이 결혼후 출산, 양육한 총 자녀수, 자녀출산 및 양육에 소요된 기간 등 인구학적 요인별로 비교 분석함.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1997년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서산시 지역에 거주하는 60세이상 남녀 노인 276명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에 의해 이루어졌다. 조사대상자는 일개 4년제대학 노인복지학과 2~4학년 학생중 서산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의 집 주변에서 편의표집에 의해 선정된 노인이며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노인들에 한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다.

서산시는 과거 郡단위의 전형적인 농촌지역이었으나 1994년이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시로 승격되면서 지역 일부는 邑·洞 등 도시화된 개념의 행정 구역 명칭을 사용하며 실제 문화근린 시설도 도시에 준하는 반면 일부는 面, 里 등 농촌

형 행정체제하에 주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를 행정구역에 따라 (1) 洞·畝의 도시지역, (2) 面·里的 농촌지역으로 2분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조사대상 노인중 도시지역은 남녀가 각각 41.6%와 58.4%며 농촌지역은 남자 55.3%, 여자 41.7%였다. 연령대별로는 도시지역 경우 60-64세가 29.9%로 가장 많았고 농촌은 65-69세가 24.1%로 가장 많았다. 85세 이상 최고령층의 비율은 도시 3.9%,

농촌 2.5%였다. 학력에 있어서는 지역간 편차가 매우 심하여 도시의 경우 무학이 16.9%이고 고등학교 이상 교육을 받은 노인이 22.3% 이상인 반면 농촌은 무학이 35.7%에 달하고 고등학교 이상 교육을 받은 노인이 16.5%에 불과하였다. 종교에 있어서는 도시에 비해 농촌은 불교와 기독교의 비율이 다소 높은 반면 천주교의 비율이 낮았다. 혼인상태에 있어서는 농촌경우 배우자와 함께 살고있는 노인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주거상태에 있어서도 지역간 현저한 차이가 관찰되었는데 도시에 비해 농촌의 경우 단독주택에서 살고있는 노인의 비율이 89.5%에 달해 도시노인(40.3%)의 2배를 훨씬 초과하였다. 또한 도시노인 경우 36.4%만이 가족 소유 집(自家)에 살고 있는데 비해 농촌 경우 63.3%가 自家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의 일반특성 단위:명(%)

항목	市·畝지역	里지역
성별		
남	32 (41.6)	116 (55.3)
녀	45 (58.4)	83 (41.7)
계	77(100.0)	199(100.0)
연령대		
60-64	23 (29.9)	45 (22.6)
65-69	18 (23.4)	48 (24.1)
70-74	8 (11.7)	43 (21.6)
75-79	17 (22.1)	45 (22.6)
80-84	7 (9.1)	13 (6.5)
85이상	3 (3.9)	5 (2.5)
계	77(100.0)	199(100.0)
학력(중퇴포함)		
무학	13 (16.9)	71 (35.7)
서당	6 (7.8)	12 (6.0)
국민학교	35 (45.5)	67 (33.7)
중학교	6 (7.8)	14 (7.0)
고등학교	7 (9.1)	18 (9.0)
전문대이상	8 (10.4)	8 (4.0)
무응답	2 (2.6)	7 (3.5)
계	77(100.0)	199(100.0)
종교		
불교	23 (29.9)	66 (33.2)
기독교	18 (23.4)	57 (28.6)
천주교	14 (18.2)	14 (7.0)
기타	2 (2.6)	6 (3.0)
없음	20 (26.0)	56 (28.1)
계	77(100.0)	199(100.0)
혼인상태		
배우자有	40 (51.9)	126 (63.3)
이혼 및 사별	37 (48.1)	73 (36.7)
계	77(100.0)	199(100.0)
주택구조		
단독주택	31 (40.3)	175 (89.5)
공동주택	48 (59.7)	24 (12.1)
계	77(100.0)	199(100.0)
주택소유형태		
自家	28 (36.4)	126 (63.3)
전/월세	49 (63.6)	73 (36.7)
계	77(100.0)	199(100.0)

2. 조사항목 및 분석과정

본 연구의 조사항목은 (1) 성별, 연령, 교육, 혼인상태등 일반적인 사회요인, (2)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의 수(배우자, 자녀, 손자녀, 친인척 등), (3) 동·별거유형(노인단독, 자녀와의 동거 등), (4) 주택의 구조(단독주택, 공동주택), 그리고 (5) 주택 소유여부(본인 및 배우자나 자녀소유 등 가족 소유 自家, 전/월세), (6) 형제자매중 조사대상 노인의 순위, (7) 노인이 직접 출산하여 양육한 총 자녀수, 그리고 (8) 최초 자녀 출산후부터 최종 자녀 출산시기까지의 기간(가족 확대기)등 총 8개 항목이었다.

각 항목별로 조사된 데이터는 개인 컴퓨터용 SPSS에 입력되었으며 동·별거 유형을 위에 열거한 주거상황 및 인구사회학적 상황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동·별거 유형의 척도인 가족수(household size)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수와의 다중회귀 분석이 실시되었다.

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 있어 각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노인가구라 함은 만 60세이상 노인이 조사시기를 기준으로 지난 1년간 거주해오고 있는 가구(household)를 말한다.

2. 노인단독가구란 위에 이미 정의된 노인가구 중 노인들만 단독으로 거주하는 가구로서, 독신 노인 한명, 혹은 조사대상 노인과 그 배우자 두 사람 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2세대 가구란 독신 노인이나 노인 부부, 그리고 그 자녀세대등 2세대가 거주하는 가구로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5)의 수식에 따라 “노인단독+노인의 자녀 동거”로 표시된다. 2세대 가구에 포함된 자녀세대는 미혼자녀나 결혼후 출산 이전의 자녀가 포함된다.

4. 3세대가구란 3개 세대가 동거하는 가구로서 위에 정의된 2세대에 손자녀가 포함되어 “노인단독+노인의 자녀+동거자녀가 출산한 노인의 손자녀”로 표시된다.

5. 결혼형 노인가구란 가구원중 일부가 존재하다가 특정사유로 1년 이상 결혼이 된 상태의 가구로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자녀의 사망, 이혼, 장기간 출타로 인해 노인과 손자녀만 동거하는 4개 가구가 이에 해당된다.

6. 기타유형 노인가구란 조사대상 노인이 친척, 친구등 직계 자녀와 무관한 사람과 동거하는 가구를 지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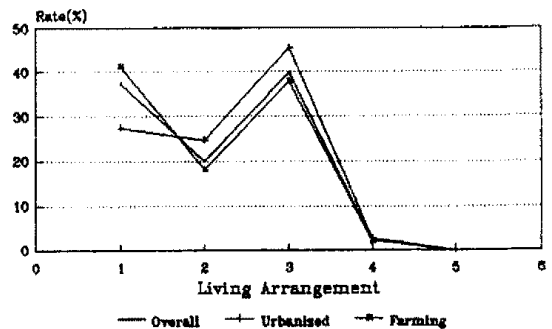
III. 결과 및 해석

1. 지역별 동별거 상태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전체 노인가구중 자녀 및 손자녀와 거주하는 3세대 가구가 39.9%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독신노인이나 노인 부부만 거주하는 노인단독 가구는 전체 노인가구 중 37.3%, 그리고 2세대 가구비율이 가장 낮은 수준인 19.9%를 보이며 결혼이나 기타 유형은

표 2. 동별거유형의 지역간 비교 단위:명(%)

동별거유형	도시	농촌	전체
노인단독	21(27.3)	82(41.2)	103 (37.3)
2세대	19(24.7)	36(18.1)	55 (19.9)
3세대	35(45.5)	75(37.7)	110 (39.9)
결혼형	2 (2.6)	4 (2.0)	6 (2.2)
기타유형	0 (0.0)	2 (1.0)	2 (0.7)
계	77(27.9)	199(72.1)	276(100.0)



1 = Elderly 2 = 2 Generations 3 = 3 Generations 4 = Missing 5 = others

그림 1. 동별거 유형의 지역간 비교.

전체 중 2.0%로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인다.

노인가구의 유형별 분포는 지역간 큰 차이를 보인다. 市· 邑 경우 3세대 가구가 전체의 45.5%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노인단독가구는 27.3%에 불과하지만 里지역 경우 노인단독 가구가 41.2%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전형적인 농촌지역 경우 자녀의 도시 이주로 인해 노인단독가구 비율이 도시화된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현상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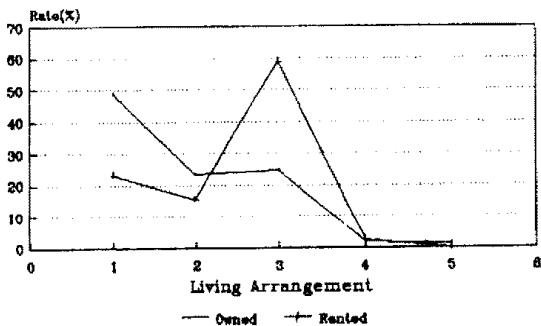
2. 주거조건별 동별거 상태

노인이나 자녀가 소유하는 주택, 즉 自家에 거주하는 노인가구중 절반에 가까운 48.7%는 노인단독가구로서, 그 가구수는 Chi-square test 기대값인 57.4를 훨씬 초과한 75를 보였다. 반면 전·월세 가구에 거주하는 노인중 23.0%인 28가구(기대값 = 45.5)만이 노인 단독가구이며 절대다수인 72가구(기대값 = 48.6), 즉 59.0%가 3세대 동거가구임이 나타난다. 주택소유형태와 노인가구 유형은 경제상태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바, 재

표 3. 주택소유와 동별거 유형

동별거 유형	단위 : 명(%)		
	自家	전·월세	전체
노인단독	75(48.7)	28(23.0)	103(37.3)
기대값*	57.4	45.5	
2세대	36(23.4)	19(15.6)	55(19.9)
기대값*	30.6	24.3	
3세대	38(24.7)	72(59.0)	110(39.9)
기대값*	61.3	48.6	
결혼형	3 (1.9)	3 (2.5)	6 (2.2)
기대값*	3.3	2.6	
기타유형	2 (1.3)	0 (0.0)	2 (0.7)
기대값*	1.1	0.8	
계	154(55.7)	122(44.2)	276(100.0)
Chi-square = 35.98 D.F. = 4 P = 0.00			

*row total × column total ÷ Grand Total



1 = elderly 2 = 2 Generations 3 = 3 Generations 4 = Missing 5 = Others

그림 2. 주택소유와 동별거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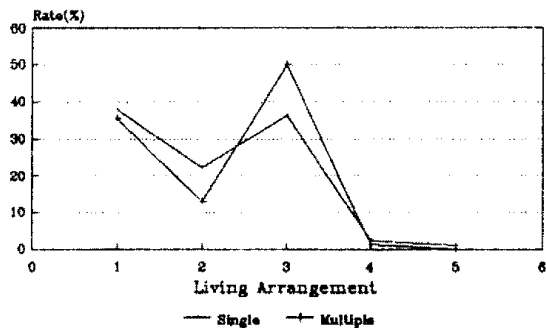
정능력이 큰 노인들은 스스로 소유하는 주택에서 독립생활을 유지하며 노인부부만 거주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경제상태가 열등한 노인은 전·월세 상태에서 자녀 및 손자녀와 더불어 대가족이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노인가구의 유형별 분포는 주택구조에 따라서도 역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노인가구 중 가장 높은 비율인 37.9%는 노인단독 가구며 3세대 가구는 이보다 약간 적은 36.4%를 보인다. 이에 비해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노인 경우 가장 높은 비율인 50.0%가 3세대 가구이며 노인단독 가구는 이보다 훨씬 적은 35.7%를 보였다. 주택구조와 노인가구 유형은 경제상태와 거주지역 특성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바, 재정능력이 크기에 넓은

표 4. 주택구조와 동별거 유형

동별거 유형	단위 : 명(%)		
	단독주택	공동주택	전체
노인단독	78(37.9)	25(35.7)	103 (37.3)
기대값*	76.8	26.1	
2세대	46(22.3)	9(12.9)	55 (19.9)
기대값*	41.0	13.9	
3세대	75(36.4)	35(50.0)	110 (39.9)
기대값*	82.1	27.8	
결혼형	5 (2.4)	1 (1.4)	6 (2.2)
기대값*	4.4	1.5	
기타유형	2 (1.0)	0 (0.0)	2 (0.7)
기대값*	1.4	0.5	
계	206(74.6)	70(25.3)	276(100.0)
Chi-square = 5.76 D.F. = 4 P = 0.22			

*:row total × column total ÷ Grand Total



1 = Elderly 2 = 2 Generations 3 = 3 Generations 4 = Missing 5 = Others

그림 3. 주택구조와 동별거 유형.

대지가 딸린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노인, 그리고 공공주택 보급율이 낮은 특성을 지닌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그 경제적 능력이나 농촌의 특성으로 인해 노인단독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노인은 도시화된 지역에서 살 가능성이 높은 점, 그리고 단독주택을 구입할 여유가 적은 재정상태 등의 복합적 영향에 의해 3세대가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3. 동별거 유형의 인구학적 비교

형제자매중 맏이(1순위)로 자라난 노인들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노인단독 가구로서 42.9%나 되고 두번째는 3세대로서 33.3%, 그리고 세번째는 2세대 가구로서 20.6%였다. 맏이로 자란 노인 중 노인단독가구수는 27로서 Chi-square test 기대값인 21.7를 훨씬 초과하였다. 이

러한 결과는 최근 한국노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배희선, 1998)에서 나타나듯 한국인 부모는 집, 부동산, 현금 등 경제적 자원을 자녀에 상속 하는데 있어 자녀의 출생순위를 중요시는 경향으로 풀이되는바 말이로 성장해온 노인은 부모로부터 상속받는 재산의 가치가 다른 형제보다 높아 재정 자립도가 크므로 본인소유 집에서 노부부만의 독립적인 생활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비해 형제자매중 말이가 아닌 노인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3세대 가구로서 40% 이상을 차지하였고 노인단독 가구는 두번째 비율을 차지하여, 말이로 자란 노인 경우와 큰 대조를 보였다. 말이가 아닌 노인들은 과거 우리나라 농촌 경제구조에 비추어 볼때 토지나 집 등 재산상속 가능성이 말이에 비해 크게 낮기에 재정자립 기반이 약하게 형성되어 노후에 이르러 노인만의 독립생활 보다는 결혼한 자녀와 함께 살며 의존적인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노인가구 유형은 노인이 양육해온 자녀의 수에 따라 특징적인 현상을 나타낸다. 자녀가 1명 밖에 없는 노인은 8명으로서 자녀수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조사대상 노인의 5% 미만인 8명에 불과하다. 이 8명중 62.5%에 해당하는 5명은 노인 단독가구이며 37.5%인 3명은 3세대 가구로서 2세대 가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녀가 2명인 노인 경우 52.6%가 3세대 가구며 노인단독가구는 이보다 크게 적은 31.6%를 보임으로서, 1인 자녀 노인에 비해 단독 가구 비율이 훨씬 적은 특징을 갖는다. 자녀가 3명인 경우 다시 노인단독가구 비율이 가장 높지만 이러한 현상은 자녀가 4명 이상인 가구부터 다시 반전되어 대부분 자녀 수가 많은 노인의 경우 자녀 및 손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현상을 보였다.

자녀수가 3명 이하인 경우 노인 단독가구 비율이 비교적 높은 현상은 두 가지로 설명 될 수 있는데 그 첫번째는 자녀를 적게 출산 하는 부부가

대개 고학력, 사무직 종사 노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며 두번째는 자녀 수가 적은 노인일 수록 자녀양육에 소모되는 재정이 적기에 노후에도 노인단독가구로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을 비롯한 60년대 이후 신흥공업 개발 도상국 경우 학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오랜 교육기간과 대학 졸업후 취업으로 인한 혼인시기 지체로 인해 자녀를 적게 낳는 현상이 강하기에 (Lee, 1990;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7) 자녀수가 적은 부부가 노후에 이르면 재정상태및 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우수하여 노인단독으로 독립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자녀 수가 많은 노인은 혼인연령이 낮고 교육 및 기타 사회경제수준이 낮으며 특히 많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건강과 재정상태가 저하되어 노후에 독립적인 생활능력이 결여되어 결혼한 자녀에게 의존해 생활하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가족 확대기란 말 그대로 자녀 출산이 많아지면서 가족의 규모가 확대되는 시기를 말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7)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초 자녀 출산부터 최종자녀 출산 시기까지 기간을 가족 확대기로 정하였다. 본 연구 조사대상 노인의 90% 이상은 최초 출산후 20년 이내에 가족 확대기가 끝나는데, 대다수 노

표 5. 출생순위와 동별거유형 단위:명(%)

노인가구 유형	형제자매중 출생 순위				전체
	1	2	3	4이상	
노인단독	27(42.9)	16(28.1)	12(31.6)	7(31.8)	62 (34.4)
기대값*	21.7	19.6	13.0	7.5	
2세대	13(20.6)	14(24.6)	9(23.7)	6(27.3)	42 (23.3)
기대값*	14.7	13.3	8.8	5.1	
3세대	21(33.3)	25(43.9)	16(42.1)	9(40.0)	71 (39.4)
기대값*	24.8	22.4	14.9	8.6	
결혼형	2 (3.2)	1 (1.8)	1 (2.6)	0 (0.0)	4 (2.2)
기대값*	1.4	1.2	0.8	0.4	
기타유형	0 (0.0)	1 (1.8)	0 (0.0)	0 (0.0)	1 (0.5)
기대값*	0.3	0.3	0.2	0.1	
계	63(35.0)	57(31.6)	38(21.1)	22(12.2)	180(100.0)
Chi-square = 6.43 D.F. = 12 P = 0.18					

*row total × column total ÷ Grand Total

표 6. 자녀수와 동별거유형 단위:명(%)

자녀수	동별거유형					계
	노인단독	2세대	3세대	결혼형	기타	
1	5 (62.5)	0	3 (37.5)	0	0	8 (4.4)
기대값*	2.7	1.8	3.1	10.1	0.0	
2	6 (31.6)	3 (15.8)	10 (52.6)	0	0	19 (10.5)
기대값*	16.5	4.4	7.4	0.4	0.1	
3	14 (45.2)	8 (25.8)	8 (25.8)	1 (3.2)	0	31 (17.2)
기대값*	10.6	7.2	12.2	0.6	0.1	
4	8 (24.2)	11 (33.3)	14 (42.4)	0	0	33 (18.3)
기대값*	11.3	7.7	13.0	0.7	0.1	
5	11 (37.9)	7 (24.1)	11 (37.9)	0	0	29 (16.1)
기대값*	9.9	6.7	11.4	0.6	0.1	
6	13 (39.4)	5 (15.2)	14 (42.4)	1 (3.0)	0	33 (18.3)
기대값*	11.3	7.7	13.0	0.7	0.1	
7이상	5 (18.5)	8 (29.6)	11 (40.7)	2 (7.4)	1 (3.7)	27 (15.0)
기대값*	9.3	1.2	10.6	0.6	0.1	
계	62 (34.4)	42 (23.3)	71 (39.4)	4 (2.2)	1 (0.5)	180 (100.0)

Chi-square=25.10 D.F.=24 P=0.40

*row total × column total ÷ Grand Total

인 경우 가족 확대기간 차이에 의한 노후 동거유형의 특징적인 차이는 관찰 되지 않는다. 가족 확대기간이 10년 이하인 노인이나 10-20년인 노인 경우 노인단독가구와 3세대 가구 비율은 33-38% 범위 이내에서 경미한 차이를 보이며 2세대 가구 역시 22-26% 범위 차이를 보인다. 이에 비해 가족 확대기간이 20-30년인 경우 56%가 3세대 동거 가구이며 노인 단독 가구 비율은 12.5%에 불과하였다. 특히 20-30년 경우 노인단독가구 수는 2로서 Chi-square-test 기대값인 5.3의 40%에도 못미치며 3세대 가구수는 9로서 기대값 6.3의 1.5배에 달한다. 가족 확대기간이 길 경우 자녀출산, 양육에 재정과 체력이 소모되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노인일 수록 고령이며 재정 및 건강수준이 열악한 확률이 높기에 자연히 독립적인 단독 생활보다는 결혼한 자녀에게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7. 가족확대기간별 노인가구의 분포 단위:명(%)

노인가구 유형	가족확대기(최초출산-최종출산)				전체
	10년이하	10-20년	20-30년	30년이상	
노인단독	25(32.9)	30(38.5)	2(12.5)	0	57(33.1)
기대값*	25.1	25.8	5.3	0.6	
2세대	20(26.3)	17(21.8)	4(25.0)	1(50.0)	42(24.4)
기대값*	18.5	19.0	3.9	0.4	
3세대	29(38.2)	29(37.2)	9(56.3)	1(50.0)	68(39.5)
기대값*	30.0	30.8	6.3	0.7	
결혼형	2(2.6)	1(1.3)	1(6.3)	0	4(2.3)
기대값*	1.7	1.8	0.3	0.0	
기타유형	0	1(1.3)	0	0	1(0.5)
기대값*	0.4	0.4	0.6	0.0	
계	76(44.1)	78(45.3)	16(9.3)	2(1.1)	172(100.0)

Chi-square=8.29 D.F.=12 P=0.76

*row total × column total ÷ Grand Total

4. 가구원수에 대한 관련변수의 영향력

가족수에 대한 설명인자의 다중회귀 분석에 있어 종속 변수는 동거 세대수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총 동거 가족수로 정한 뒤 이에 대한 설명변인(explanatory variable)의 영향이 분석되었다. 혼인 상태 경우 有배우자=1, 이혼및 사별=0으로 처리 되었으며 거주지역경우 도시=1, 농촌=0으로, 주택소유여부 경우 노인자신이나 배우자 혹은 자녀소유=1, 전·월세나 임대=0으로 처리 되었다. 주택 구조 경우 단독주택=1, 공동주택(연립, 아파트 등)=0으로 처리 되었다. 대부분 설명인자의 β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주택 소유 여부다. 주택소유 여부는 종속 변수에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데 β는 -0.28이며 P<.001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즉 주택소유 여부(소유=1, 전·월세=0)는 동거 가족수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바 자기소유 집에 사는 노인일수록 동거 가족수(household size)가 적은 이른바 노인단독 가구일 가능성이 높아짐을 시사 함으로서 앞에서 분석된 결과와 일관된 결과를 보인다.

연령과 총 자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β는 각각 0.04와 0.17로서 연령이 높은 노인일수록 그리고 자녀를 많이 낳아 기른 노인일수록 자녀 및 손자녀 등 많은 수의 가족과 동거할 가능

표 8. 동거 家口員數(household size)에 대한 영향력의 다중회귀분석(N=276)

독립변수	b	β	p-level
연령	0.01	0.04	0.68
혼인상태	-0.18	-0.05	0.58
거주지역	-0.16	-0.04	0.65
교육기간	-0.08	-0.08	0.39
주택소유여부	-0.98	-0.28	0.00***
주택구조	-0.27	-0.07	0.44
출생순위	-0.01	-0.01	0.89
가족확대기간	-0.01	-0.02	0.83
총자녀수	0.18	0.17	0.87
Constant	0.01	$R^2=0.13$	

***P<0.01

성이 높음을 시사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다. 이밖에도 혼인상태, 거주지역, 교육기간, 주택구조, 출생순위, 가족확대 기간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계수는 모두 -값을 보임으로서, 이혼이나 사별한 노인, 농촌에 사는 노인,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 공동주택에 사는 노인, 형제자매중 출생순위가 낮은 노인, 자녀를 양육한 기간이 짧은 노인 등 이른바 사회 경제수준이 열세한 노인일수록 자녀와 동거하며 의존적인 거주할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매우 낮기에 이것이 노인의 동별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않는다. 다중회귀 분석을 전반적으로 볼때 R-square 값이 0.13으로서, 관련변수가 동거가구원수에 대한 영향력을 13% 설명해 준다.

IV. 논 의

본 연구는 60세 이상 한국 노인의 거주형태중 동별거 형태, 특히 노인단독 對 자녀나 손자녀와의 동거가구 비율을 각 사회경제 요인별로 산출하기 위해 이루어진 경험적 연구로서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자면 도시에 비해 농촌경우 노인 단독가구 비율이 현저히 높으며 전월세보다는 노인이나 자녀소유 집에서 사는 노인, 그리고 형제자매중 맞이로 태어난 노인과 자녀수가 적은 노인들이 노인만의 단독 가구로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즉, 노인이 노인만의 단독 가구를 형성하느냐 아니면 자녀나 손자녀와 거주하며 2세대 이상의 대가족 가구를 형성하느냐는 지역적 특성과 인구사회학적 요인에서 비롯된 독립생활 여건에 의해 크게 좌우 된다고 하겠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의 문화규범은 세대간의 독립성, 개인주의 및 私的생활의 영역확보 등을 중시하며 가족 구성원의 분리적 주거성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간의 경제적, 일상생활적 독립을 중요시한다 (Casterline, 1993).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자녀와 노부모는 대부분 독립된 별거생활을 하고 노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는 자녀의 생활능력이 없어 노부모의 사회보장혜택에 의존하며 극도의 수치스런 생활을 하거나 특이하게 높은 부

표 9. 사회경제요인과 노인가구 분포의 특성

사회경제 요인	노인가구 분포의 특성
지 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체 노인가구중 3세대 동거 가구가 39.9%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2. 농촌지역 경우 노인단독가구 비율이 도시화된 지역보다 현저히 높음.
주 택 소 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自家노인가구중 48.7%는 노인단독 가구인 반면 전·월세거주노인은 23.0%만이 노인 단독가구임. 2. 재정능력이 큰 노인들은 스스로 소유 하는 주택에서 독립생활을 유지하며 노인부부만 거주할 가능성이 높음.
주 택 구 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독주택 거주 노인중 노인단독가구 비율이 가장 높음. 2. 공동주택거주 노인 경우 3세대 가구가 50%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율임.
출 생 순 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맞이로 자라난 노인들중 가장 높은 비율은 노인 단독 가구임. 2. 맞이가 아닌 노인중 가장 높은 비율은 3세대 가구임. 3. 형제자매중 1순위일 경우 상속재산 및 재정 자립도가 크므로 노부부만의 독립적인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아짐.
자녀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녀가 1명 밖에 없는 노인중 62.5%가 단독가구이며 37.5%는 3세대 가구임. 2. 자녀 수가 많은 노인의 경우 자녀및 손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현상을 보임.
확 대 기 간	가족 확대기간이 길 경우 자녀양육에 재정과 체력이 소모되는 기간이 길어져 단독 생활보다는 자녀에게 의존하는 기간 비율이 높아짐.

모-자식간의 결속도나 심리적 의존에 기인하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의 경우 家長의 토지 소유권을 중심으로하는 부계사회의 토착화된 유교관습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60세이상 노인들의 약 50% 정도가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을 이상적인 가족 생활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별히 노인 자신의 경제력이 높거나 자녀의 사생활보호를 위한 특별한 의도에서, 혹은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부양능력이 낮을때 불가피하게 별거할 수밖에 없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다(한국노인문제 연구소, 1993). 위의 연구들은 노인의 동별거 선호에 대해 노인이 느끼는 주관적 견해를 중점적으로 다루었기에 대부분 사회적 규범과 자녀에 관한 정서적 관점이 노인이 혼자 사느냐 아니면 자녀와 함께 사느냐를 좌우하는 주요 요인으로 해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노인의 주관적 견해를 전혀 측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별거 비율을 분석하였기에 동별거 상황의 직접적 원인을 정확히 단정할 수 없는 제한점이 있긴 하지만, 이제까지 한국노인의 동별거유형에 대한 절대적인 설명변인으로 취급되어온 요인, 즉 “자녀와의 동거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규범”과는 다른 새로운 설명변인의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그것은 곧, “능력이 있다면 노인 스스로 독립된 생활을 하려는 의지”라고 하겠다. 본 연구 결과 젊은 층의 도시 이주가 빚어내는 불가피성에 의해 도시에 비해 농촌이 노인단독 가구 비율이 높다는 점 외에는 우월한 인구 사회학적 요인이 노인단독 가구 가능성을 높인다는 새로운 사실이 제기된다. 이것은 최근들어 노인촌락, 노인휴양타운 등 독립적인 노인 집합주거에 대한 노인들의 인식이 새로워지면서(한국주택협회, 1993; 석정개발, 1994) “자녀와의 동거”라는 고전적인 사회규범에서 “가능하면 노인만의 독립적인 주거문화”이라는 변화된 사회규범이 형성되고 있다고 해석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근거

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노인이 단독으로 사느냐 아니면 자녀 및 손자녀와 사느냐는 도시-농촌의 지역적 특성과 인구사회학적 여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2. 주택을 소유한 노인은 자녀 및 손자녀와 별거하여 독립된 노인 단독 가구 생활을 영위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집단이다.
3. 만이로 자라난 노인은 부모로부터 재산상속을 가장 많이 받으므로 독립적인 노인 단독가구를 구성할 가능성이 다른 형제에 비해 높다.
4. 자녀수가 적은 노인일수록 건강과 재정상태가 좋아 독립적인 노인 단독가구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5. 가족확대기간이 짧은 노인일수록 독립적인 노인 단독가구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참고문헌

1. 김태현(1994). 노년학. 교문사
2. 배희선(1998). 중. 노년기 가계의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 移轉서울대학교 대학원 소비자 아동학과 박사학위 논문.
3. 석정개발(1994). 석정실버 시니어라이프.
4. 신한종합연구소(1991). 21세기 실버산업의 전망. 성림문화사
5. 한국노인문제연구소(1992). 노인주거시설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흥익재
6. 한국노인문제연구소(1993). 노인생활실태조사. 흥익재
7.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5). 노인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8.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7). 전국출산력및 가족 보건실태조사.
9. 한국주택협회(1993).실버산업관련 노인 주택에 관한 조사연구.
10. Casterline, J.B. (1993). "Difference in the Living Arrangement of the Elderly in Four Asian Countries," PSA Research Report Series, No.91-10.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Ann Arbor, MI, U.S.A.
11. Lee, I. (1990). A Longitudinal Model of Determinants of Housing Status in Oaxaca, Mexico. Iowa State University Ph.D. Dissertation, Ames, Iowa, U.S.A.

(接受: 1998. 8. 10)